



탐스런 조선탄 수확 한창
밤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른 26일
광주시 남구 석정동 밭에서 노부부
가 조선탄을 수확하며 즐거워 하고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 수능 '쉬운 영어' 변수

한 문제 틀려도 2등급... 난도 높은 수학 영향력 커져

입시전문가들 전망

올해 입시는 '쉬운 영어'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준별 시험을 폐지하고 통합형으로 쉽게 출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변별력이 사라져 영어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쉬운 영어 탓에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수학의 영향력은 훨씬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영어의 난이도가 낮아지면 수학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3~5개가 나오는 고난도 문제 해결능력에 따라 최상위권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입시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은 수준별 시험에서 통합형으로 전환되고, 교육부의 '쉬운 수능 영어' 방침에 따라 쉽게 출제된다.

작년과 비교하면 어려운 B형보다는 쉽고, 쉬운 A형보다는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원 측은 설명

했다. 특히 수험생의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는 빈칸추론 문항이 7개에서 4개로 줄어들고, 지문의 길이도 짧아진다. 그만큼 쉬워진다는 의미다.

'쉬운 영어' 기조가 확정되면서 영어 영역의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낮아져,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은 수학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양락 평가원 부원장은 "국어 A/B는 소제나 대상이 다를 뿐이지 A형이 B형보다 문제가 쉽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국어와 수학은 작년보다 어렵지 않게 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철민 송덕고 교사는 "6월 모의평가가 올해 수능의 경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며 "3월 평가 결과로 토대로 자신이 약한 부분을 파악해 보완하고, 6월 평가 이후 구체적 수능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EBS 연계율이 70%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하지만 최저 상위권은 3~5개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의 해결여부에 따라 수능 성패가

갈라기 때문에 반드시 심화과정을 학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성호 하남교육 대표는 "영어가 쉽게 출제될 경우 1등급 인원이 크게 증가해 최저등급 충족 학생이 늘어 수시에서는 논술·구술면접·학생부 비교과와 서류심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종은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올해 통합형으로 치러지면 지난해 B형 시험에서 1등급대를 받았던 학생은 올해 수능에서 백분위가 1점 이상, 2등급대는 2점, 3등급대는 6점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영어가 쉬워지는 대신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집중력이 더 요구된다는 조언도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영어가 쉽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커 상위권에서는 실수할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고난도 유형인 빈칸추론과 쓰기, 일차·불일치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이산호 기름유출' 도선사 구속

GS칼텍스 관계자 등 8명 입건

여수 우이산호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선박을 운항한 주 도선사가 구속되고 GS칼텍스 관계자 등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여수해양경찰은 26일 운항 부주의로 선박과 부두 시설물을 파손하고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모(64)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30분께 여수시 낙동동 GS

칼텍스 원유2부두에 선박을 접안하는 과정에서 통상 속력보다 3배 이상 빠른 7노트의 속력으로 배를 몰아 부두에 있는 송유관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 근로자 이모(46)씨를 다치게 하고, 655kl~754kl 가량의 원유와 나프타 등을 해상에 유출시킨 혐의다.

해경은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우이산호 부도선사 이모(58)씨를 비롯한 관계자 8명을 사고 유발 책임과 사고 발생 이후 초동조치 미흡, 지휘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목포대교에서 또 ...

목포 대교에서 또다시 투신 사고가 발생했다. '자살 대교'라는 오명을 쓴 뒤 차량 순찰 강화, 보행자 출입 제한, CCTV 설치 등 수차례 거론됐던 방안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거세다.

지난 25일 밤 9시10분께 목포~영암 방면 목포대교 1주탑 위에서 전남도 7급 공무원 심모(여·41)씨가 투신, 숨졌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목포해경은 50여분 뒤 목포대교 1주탑 보호대 위에서 숨져 있는 심씨를 발견했다.

심씨 동료는 "전날 헬씨가 좋지 않았고, 이 날 아침 문자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연가를 내달라고 해

도청 여직원 투신자살 1년9개월 새 9명이나 자살 방지대책 '말뿐'

출근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심씨가 자신의 집에 "가족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2년 6월 목포대교 개통 뒤 9번째로, 투신 자살을 위한 관계 당국의 자살 방지 대책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뿐인' 예방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자살 대교'라는 지적이 제기된 뒤 24시간 감시원 배치, 정기 순찰 등의 방침을 밝혔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 순찰활동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도 CCTV 설치 등을 언급했지만 계약상 문제 등으로 여태껏 추진조차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6대뿐인 비상전화 외 추가로 '생명의 전화'를 설치하고 LED 자살 방지문구를 새기는 한편,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27분 해질 18시 49분
달출 03시 45분 달몰 15시 03분

미세먼지 '보통'

강한 햇볕으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광주	맑음	8/23℃
목포	맑음	7/19℃
여수	맑음	12/20℃
나주	맑음	5/23℃
완도	맑음	8/22℃
구례	맑음	7/24℃
강진	맑음	5/22℃
해남	맑음	4/19℃
장흥	맑음	5/23℃
순천	맑음	11/23℃
영광	맑음	5/21℃
진도	맑음	5/18℃
전주	맑음	7/22℃
군산	맑음	6/20℃
남원	맑음	6/22℃
옥산도	맑음	8/15℃

종류	방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관심	보통	보통
	서~북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관심	보통	보통
	북서~북	0.5~1.5m			
종류	방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목포 11:22	04:05	
	북서~북	0.5~1.0m	23:42	17:01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여수 06:42	12:50	
	북~북동	0.5~1.0m	18:53	00:0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8(금)	29(토)	30(일)	31(월)	4/1(화)	4/2(수)
날씨						
최저/최고	9/24	13/16	10/19	8/21	9/20	8/18

“보험금 왜 절반만 주냐” 50대 분신 소동

광주동부경찰은 26일 보험금이 절반만 지급된 것에 불만을 품고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예비)로 안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A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해당 보험사

가 상해보험 보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험회사 지점 내부 휴게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난 2004년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최근 상해보험금 1118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청구금액의 절반인 559만원만 주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정화구역서 성매매 알선 업주 등 3명 조사

광주서부경찰은 26일 광주 모 여고 인근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한모(40)씨와 러시아인 K(여·28)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월부터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여고 인근 빌딩에 '24시 컴퓨터방'이라는 간판

을 내걸고 러시아, 태국, 한국 여성을 고용해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유사성행위 업소인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외국인들을 고용해 국적별로 11~13만원의 화대를 청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국 으뜸의 상수원, 우리가 지켜갑니다.

주암댐, 동북댐, 장흥댐, 상사댐, 수어댐 등 5개 댐은 광주·전남지역에 먹는물을 공급하며, 전국 최고의 수질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깨끗한 상수원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

하나, 댐 주변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합니다.
댐 인근 국유지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준수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락, 야영 및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등은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셋, 하천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상수원 상류 토지의 불법이용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국유지 내 무단경작 및 폐기물 방치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Tel) 062-410-5341~6